

그리스도인 34. 그리스도인은 책임감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Christian 34. Christians are to be responsible members of the church.

1. 독립침례교회(independent Baptist Church)는 교단, 교파,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역교회(Local Church)를 말한다. 교회 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를 말한다.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책임감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누리기만 한다든지, 내 편리에 의해 조용히 왔다 가며 말씀만 듣는 사람은 지역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

2. 시편 22편 20절에 의하면,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자'(my darling)라고 부르셨다. 영어 성경에서 이 표현(my darling)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표현이다.

²⁵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²⁶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²⁷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 시려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²⁸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²⁹이는 이제껏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같이 하기 때문이라.

•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의하면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

•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 의하면 주님은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의하면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신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말씀들은 주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렇듯 교회가 주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역시 가볍거나 무책임하거나 방관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3. 성경적인 지역교회(Biblical Local Church)는 그 교회를 감독하는 총회나 상위기관을 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회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회중이 교

회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 회중에 의해서 세워진 **담임목사(senior pastor)**는 **감독(Bishop)**으로서 집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제시한다. 회중은 그 교회의 믿음과 실행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담임목사를 세워야 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하며 참여할 수 있다.

4. 교회 내에서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권위를 가진 자들은 균립하려 들지 말아야 하며 성도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반대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면서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벧전 5:5)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히 13:7)

5.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감독, 혹은 담임목사의 믿음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자이기 때문이다(벧전 5:1-4). 예수님께서 **목자장(the chief Shepherd)**, **양들의 큰 목자(great shepherd of the sheep)**라면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한 목자를 따로 두신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모두 교회를 이끄는 목자는 아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지 결정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6.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 교회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교회의 실행 원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책임감 있게 헌신해야 한다. 이런 헌신에는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리는 일들이 다 포함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지역교회에 책임감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